전국 로스쿨생 대상 ADR 전문 교육 실시해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전국 로스쿨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조정 ·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ADR 전문 교육은 법원 조정제도 및 언론, 노동, 상사 등 제 분야의 조정제도와 사례, 설득과 수사, 협상의 이론과 기법 등 ADR제도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이 12일 제1차 예비법조인 ADR 교육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 '조선시대 언관제도', '언론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강좌와 함께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 언론중재위원 특강도 마련됐다.

● 교육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초상권 분쟁에 있어 동의의 범위'와 '언론조정신청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두 가지 주제로 로스쿨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12면 참조)

● 토론회를 마치고 권성 위원장은 실무수습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법률 지식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더해야"

로스쿨생들과 환경정화활동 실시

"예비 법률가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가의 마음은 늘 사회를 향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송동경 학생 (이화여대 로스쿨)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법률인이 되어서도 주변 환경과 사회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초심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정광 학생 (경희대 로스쿨)

ADR 실무수습 교육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8월 18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법률적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로 18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가량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진행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뒷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사무처 직원 및 위원회 실무수습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18일 아침 한강공원 잠원 지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